

목조주택의 장점

1. 자연친화적이며 건강에 유익하다.

요즘 아토피와 새집증후군을 참 많이 알고 계신데,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집에서는 도통 낫기가 힘들죠.
그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하나를 꼽자면
단연 **목조주택**입니다.

아토피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있는데요.
6개월이면 완.치.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심에 사시는 부부 중에
요즘 자녀 아토피 문제로 고민중이신 엄마들께서
목/조/주택/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연락 많이 하신답니다.

나무가 스스로 습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실내가 건조할때에는 머금고 있던 습기를 내뿜고,
또, 습할 때에는 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적정 습도를 유지한답니다.

게다가 나무에서는 **원적외선**이 발생하고 암예방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 **피톤치드**와 음이온이 발생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지요.
더불어 **소음을 차단하고 편안함을 주는 소리만 전달**한답니다.
마음까지 한결 편해지시겠죠?

2. 단열이 좋다.

콘크리트의 7배, 벽돌의 6배, 석재의 15배,
철의 176배, 일반단열재의 1.5배를 자랑합니다.

**단열이 좋기 때문에 여름철과 겨울철의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답니다.**

"실제로 전원주택 춥다는 얘기 많던데?"
라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실제로 목구조에서 살아보시면 깜짝 놀란답니다.
그 후로는 목구조의 영원한 팬이 되시기도 하시지요^^

물론, 알고계신 대로 추운 곳도 많아요~
건축에서 얼마나 단열에 신경쓰고
시공을 꼼꼼히 하느냐에 따라
같은 목구조라도 차이가 나는것이며,
그 효과가 확연히 다릅니다.

**최고급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과
시공사 선정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요?

3. 기밀성이 우수하다.

인슐레이션을 단열재로 채워 넣게 됩니다.
미세한 틈이 보이지 않게 꽉꽉 채워 넣을 수록 좋답니다.

그리고 구조체를 나무를 선택한 만큼,
이 단열재도 **최/고/급/친/환경**의 제품을
사용하는 편이 더 낫겠지요?



(단열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4. 공사기간이 짧고 경제적이다.

목구조는 구조체가 올라가는 시간이 매우 빠릅니다.
며칠 안에 집구조가 올라가기도 하니까요.

공사현장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데,
목구조는 빠른 공사기간을 자랑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이죠.

또한, 가설물과 거푸집 설치가 적기에
중장비를 사용하는 일이 적어서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는 편이랍니다.

소수의 숙련공으로 시공이 가능하기에
공사기간도 단축되지요.

그외에는, 현장 작업 중에 골조를 옮길 수도 있고요.
겨울에도 상관없이 시공이 가능하기도 하답니다.
벽체 사이의 간격을 활용하여 선반이나,
내부벽에 창호도 쉽게 뚫을 수 있다는 장점까지 담고 있답니다.

5. 내구성과 좋고, 수명이 길다.

기/존/주/택/의 내구성이 30~50년인데 반해,
목조주택은 기본 70~100년입니다.

미국의 경우 100년 이상 된 목조주택도 있고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할 시에는
200~300년의 수명을 자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보급의 목조 건물들이
아직도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시면
느끼실 수 있겠지요?

잘 관리된 목구조의 집은
이렇게 **대를 물려 주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만큼
그 내구성이 입증되어있는 것이랍니다.

6. 심미성이 뛰어나다.

목재의 특유의 따뜻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나무 문양의 자연스러운 선과 색상
그리고 **부드러운 촉감**이 잘 조화가 되어있지요.

또 집안 내부에 은은히 풍겨오는 **나무 내음**이 아주 좋습니다.
안락함과 더불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또한, 살아있는 생명체인 사람과
생명체였던 목재가 동일한 생체 리듬을 갖기 때문에,
생활의 활력을 갖게 됩니다.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는 적당한 탄성이 있습니다.